

조선후기 여성 대상 제문과 묘지명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강혜선(성신여대)

1. 서론
2. 여성 대상 묘지명에 나타난 일상과 규범성
 - 1) 일상과 규범의 전인, 송시열과 이식의 예
 - 2) 일상과 규범의 거리, 김창협과 김창흡의 예
 - 3) 일상과 규범의 내재화, 정약용의 예
 - 4) 일상과 규범의 탈피, 박지원의 예
3. 여성 대상 제문에 나타난 일상과 양식성
 - 1) 양식의 준수와 일상의 서정화, 김창협과 김창흡의 예
 - 2) 양식의 변화와 일상의 서사화, 이광사의 예
4. 결론

1. 서론

한문학 텍스트에는 일상이 여러 층위, 다양한 방식과 수준으로 드러나 있다. 가족 차원에서의 일상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텍스트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일기류. 일기는 평범한 개인의 일상부터 국가와 개인의 운명에 관한 일들까지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데, 공적 일기나 특수일기(전쟁, 표류, 사행 등)와 구별되는 생활일기에 일상이 풍부하게 드러나 있다. 생활일기는 삶에 대한 실제적 증언, 기록이라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역사이자 문학으로서 가치를 지닌다.¹⁾

1)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정신문화연구』 65, 1996), 송재용, 「한국

둘째, 전장류 또는 실기류. 자신의 삶과 일상을 기록하는 일기와 달리, 제삼자가 인물의 행적을 기술하는 전, 행장, 유사, 실기 등은 일상의 반영이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인물의 행적을 세상에 전하려는 글의 속성상 일상의 성격 역시 제한적이다.

셋째, 가족간에 주고받는 서신류. 가족간에 주고받는 편지에는 일상생활이 풍부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는데, 개인문집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대체로 생활상의 수요로 생긴 일상적 편지들이 걸러지고 한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작가의 문학적 창작의식이 분명한 편지들 속에 일상이 풍부하게 담긴 경우가 눈에 띈다. 예컨대, 유배지에서 정약용과 이광사가 부친 편지들이 그러하다.

넷째, 悼亡詩, 哭子詩 등과 같은 가족의 죽음을 애도한 한시류. 이 경우 대상과의 혈연성, 친밀성으로 인하여 일상의 반영이 풍부할 수 있다. 대체로 근체시 형식으로 쓴 경우는 망자에 대한 칭송과 애도가 함축적으로 진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일상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는 힘들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장편의 고시나 잡언 형식, 연작 형식 등으로 쓴 경우, 생전의 부부사이, 부녀사이, 형제사이 등의 일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눈에 띈다. 이광사, 심노승 등의 도망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다섯째, 가족과 떨어져서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가족에게 부치는 한시류. 흔히 寄內詩, 寄女詩(寄子詩) 등의 제목이 붙는 경우이다. 대체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등의 감정을 짙은 시형식에 함축적으로 담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 이르면 편지로 쓰기에 적합한 산문적 내용(사연)과 정서를 장편의 고시형식으로 쓴 작품들이 등장한다. 예컨대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부친 시나 두 아들을 그리워하면 쓴 시편들, 이광사의 <寄幼女>, <答女兒西孤子>, <婦女思> 등 이덕무가 시집간 누이들에게 부친 시편들에는 전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가족생활, 곧 일상이 매우 구체화, 상세화되어 있다.

여섯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지류과 애제류. 한문학의 주요 담당층인 사대부들이 가정과 가족에 대한 발언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는 경향이 강

일기문학론 소고」(『한문학논집』 14, 1996)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대부들이 아들, 형, 종형, 백부 등 남성 가족이나 친척과 교제하며 남긴 일상의 기록은 비교적 풍부하다. 이것은 그 관계가 사적인 가족 관계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상이 오직 사적 공간인 가정 또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경우, 비지문과 애제문이라는 문학양식을 통해 감춰져 있던 여성의 일상이 드러나기 쉽다. 물론 전장, 유사, 기실 등에서도 여성의 일상은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한 글들은 대체로 여성의 특별한 행적을 기리고 전하러기 하기 때문에 여성 일반에게 모두 적용되는 글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문학 텍스트들을 통해 일상을 문제삼는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사, 여성사, 생활사의 관점에서 가족과 일상을 분석, 설명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유희춘의 『眉巖日記』를 통해 16세기 양반가정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그러한 경우이다.²⁾

둘째, 여성주의 관점이다. 가족과 일상을 드러내는 한문학 텍스트는 대부분 남성 사대부들의 글이다. 이 때문에 글속에 드러나 있는 일상의 국면에는 사대부들의 세계관과 이념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삶과 일상이 드러나 있는 텍스트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실제 삶과 일상을 읽어낼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남성 사대부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문제삼는 관점이 여성주의 관점이다.

셋째, 문학텍스트에 구현된 일상의 양상을 통해 문학양식의 변화 및 인식의 변화를 보려는 관점이다. 문학은 작가 개인이나 혹은 작가가 속해 있는 집단이 그를 혹은 그 집단을 둘러싼 세계를 형상화하고 인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문학의 양태, 양식, 장르는 그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학연구란 바로 세계의 변화와 문학의 발전관계를 설명하는 일이라고 할 때,³⁾ 가족과 일상을 드러내는 문학의 변화를 통해 세계

2) 정창권 풀어 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사계절, 2003);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6) 참조.

3) 심경호, 「서경자아의 근대적 변모와 그 한계」(『한국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563면 참조.

의 변화(여성을 포함한 인간의 삶, 일상의 변화 그 자체, 또 그를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 관점에서 문제되는 시기가 바로 조선후기이다. 문학작품으로서의 창작의식 및 창작관행이 보다 분명해지고, 한시양식과 산문양식 모두에서 일상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일상의 구체성이 풍부하게 드러나는 때가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쓰여진 여성 대상 묘지명과 제문을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묘지명과 제문은 그 관습적 수요와 제작 관행에 의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춘 문학양식으로 자리잡아 왔다. 공적인 사회적, 국가적 공간 속에서 다양한 삶의 선택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일상의 층위 또한 일차적이지 않았던 남성과 달리, 가족과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서 딸—아내—어머니로 주기화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묘지명과 제문은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더욱 격식화된 모습과 고정된 내용을 보인다. 이렇게 양식화된 묘지명과 제문의 문체가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 담긴 여성의 삶과 일상이 전대와 달라지는 시기가 바로 조선후기이다.

한편, 묘지명과 제문의 대상이 여성일 경우 대상과 밀착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선택적이고 구심적인 정경 묘사와 사건 기술을 통해 자잘한 일상적 체험을 형상화하기 쉽다.⁴⁾ 이런 점에서 여성 대상 묘지명은 남성 대상 묘지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상의 양상이 풍부하게 구현되어 있다. 특히 제삼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이 쓴 경우, 작가 자신의 체험 중심으로 여성의 일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일상의 표현이 더욱 진실되고 구체적일 수 있다.

2. 여성 대상 묘지명에 나타난 일상과 규범성

인간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유지한다. 매일 되풀이되는 삶, 그것이 바로 일

4) 이와 관련하여 귀유광의 묘지명은 근대적인 세속생활과 일상적 감정에 접근함으로써 고문 의식에 기반한 산문표현이 근대성과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최후의 단계를 보여 준다고 설명되기도 한다. 李澤厚 著, 尹壽永 譯, 『美的歷程』(동문선, 1994) 참조.

상이다. 일상은 반복적이고 진부하며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없다. 그것은 실존이며, 결코 이론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적나라한 삶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이란 지속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하는 삶의 형태일 뿐 아니라, 구조화된 사회적 현실과 이념을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인식과 경험으로 매개하는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상에는 당대 사회의 규범이 깊이 침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이용휴의 글은 여성 대상 묘지명에서 일상과 규범이 어떠한 논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글이다.

내방의 말은 문지방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규문의 아름다움은 겨우 한두 가지나 「국풍」에 드러나 있을 뿐, 史가 이어지고 經이 지어져도 기재된 것이 또한 많지 않았다. 후세에 문장이 승해지자 비로소 비지문이 생겼으니, 비지문은 실로 역사와 같은 종류이다. 이에 내방의 행실과 내방의 덕이 밝혀지지 않음이 없게 되어 효성스런 자손들의 마음이 또한 흡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른바 내방의 행실과 덕이란 것이 반드시 卓絶하여 사람들을 놀랄킬 만한 일인 것은 아니고 오직 일상생활일 뿐이지만 백성들의 상도와 하늘의 법칙이 실로 그 가운데 있다.⁵⁾

밑줄 친 부분은 곧 일상생활 속에 구현되는 여성의 행실과 덕을 常道와 天則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묘지명 속에 서술하려는 여성의 일상이 결국 영원한 보편적 원리, 규범을 드러내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주목할 것은 바로 이용휴가 ‘日用之常’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것은 문학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彝倫이 드러나는 전제로서 日常을 강조한 것은 차후 박지원 등이 일상의 小事와 일화, 추억의 장면 등을 선택하여 묘지명의 추상적 진술을

5) 李用休, 『惠衷雜著』, 「贈貞夫人坡平尹氏墓誌銘」, “內言不出梱, 故閨闈之懿, 僅一二見於國風, 史繼經作而其所記載, 亦不多焉. 後世文勝, 始有碑誌, 碑誌者實史之類也. 於是內行內德無不闡焉, 而孝子慈孫之心, 亦得以校矣. 然其所謂行與德者, 非必卓絶驚爆之事, 惟是日用之常, 而民彝天則, 實在其中.”

벗어나게 하는 과정을 암시해주기도 한다. 일상의 구체성 안에서 진솔함과 올바름을 확인해내어야 마땅하다는 논지는 이미 王艮이나 徐渭, 袁宏道 등이 제기한 것이기도 한데, 이때 日常之眞은 일상을 생동감 있게 재현함으로써 그 배후에 常道를 잠재시키는 방법과 일상에서 준수되어야 할 常道를 직시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

1) 일상과 규범의 전언, 송시열과 이식의 예

여성 대상 묘지명의 제작 관행은 대략 이렇다. 망자의 가족들은 망자의 행적을 후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학식이 있고 문장력이 있는 자를 구하여 묘지명을 부탁하고, 작가는 그에 부합하는 묘지명을 제작하기 위해 행장에 근거하여 망자의 행적을 기술한다. 따라서 여성 대상 묘지명은 남성 대상 묘지명보다 훨씬 더 일정한 형식과 정형적인 내용을 지닌다. 또한, 묘지명은 묘석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편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에 행장이나 실기처럼 자세하게 행적을 기술하지 않고, “핵심을 들어 가장 중요한 것만”을 쓰려고 한다.

그런데 작가와 대상이 달라져도 묘지명 속의 여성이 한결같이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은 여성의 삶과 일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이 일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말은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고, 말은 방문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철저히 가족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일상은, 오직 제문이나 묘지명을 담당할 남성 사대부들에 의해 선택된 일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형화된 여성의 일상은, 곧 유가적 규범 덕목인 幼儀, 婦道, 母教를 차례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름다운 자질(영민함, 온순함, 정숙함 등)을 발휘한다. 출가전에는 부모에게 효성스럽고 형제자매간에 우애롭게 지낸다. 타고난 자질로 문자와 학문을 몰래 깨우치지만 이를 내세우지 않고 女工에 힘쓴다. 출가후에는 시부모를 효성으로 모시고, 남편을 예우하며,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고, 집안의 화목을 도모하여 친척들의 칭송을 받는다. 자식을 올바르게 훈육하고, 노복을 엄격함과 자애로움으로 거느리고, 접이나 굿 등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가정경제를 책임져 남편으로 하여금 오직 학문이나 정사에 매진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망자가 죽고 난 뒤 진심으로 그를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상과 같은 여성상은 이른바 선천적인 성품과 후천적인 학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안팎으로 모두 아름다운 경지에 이른 전형적인 유가의 여성상이다. 시종일관 평면적 서술로 여성의 일상을 전언하든, 대화나 일화 등을 부분적으로 삽입했든 간에 여성의 일상을 통해 규범을 강조하고 전언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청탁을 받고 제작한 경우 여성의 일상을 통해 규범을 전언하려는 성격은 더욱 강고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 딸, 며느리, 형제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규범의 전언으로서 일상을 다루는 예가 많다. 가장 많은 묘도문자(450여 편)를 남긴 송시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송시열은 35편에 달하는 여성 대상 묘지명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유교적 규범에 부합하는 여성상을 그려놓고 있다. 그 가운데 53년을 함께 산 부인을 대상으로 한 <夫人李氏墓表>의 경우,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산 부인의 행적을 규범화하여 시종일관 서술하고 있다.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 <子婦李氏墓表>의 경우도, 며느리의 죽음을 몹시 애통해 하면서 역시 ‘恭兼, 儉勤’ 등과 같이 여성의 품성과 행실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이식의 <先妣貞敬夫人尹氏墓誌> 역시 그러한 예이다. 물론 이 작품이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쓴 아들의 글이기에 청탁을 받고 쓴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규범성 안에서 어머니의 삶과 일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이 묘지명은 전체 분량의 절반을 가계에 대한 서술에 할애하고 있으며, 생애 역시 부귀한 외척가에서 성장하여 가난한 집에 출가한 어머니가 보여준 모범적인 삶을 현창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⁶⁾

이와 같은 송시열, 이식의 묘지명에 나타나는 여성의 일상성, 그녀가 비록 나와 일상을 공유했던 가족일지라도, 당대의 규범을 보여줄 때 공인되고 의

6) 줄고, 「조선 후기 女性 墓主 墓誌銘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한국한문학연구』 30집, 한국한문학회, 2002) 참조.

미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 일상과 규범의 거리, 김창협과 김창흡의 예

<작품 예시 1> 김창협의 <亡女吳氏婦墓誌銘 并序>(『農巖集』 권27)

#1 딸의 가계와 출생

#2 다음해 거사가 의정공을 따라 서울로 돌아온 지 9년에 기사년의 화를 당하여 다시 영평의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딸의 나이가 열한 살이었다. 처음에 동생 송겸과 함께 십수 번 글을 배우더니 문리를 곧장 통달하여 혼자서 『주자강목』을 막힘없이 읽어냈다. 매일 문을 닫고 책을 펼쳐들고 꼼짝도 않은 채 침잠해 익히니, 밥먹고 자는 것조차 돌보지 않을 정도였다. 거사가 그를 어여쁘고 기특하게 여겨 막지 않고서 “이 아이 성정이 고요하면서 순박하니 비록 글을 안다 해도 해가 없을 것이야” 하였다. 그리하여 대략 『논어』와 『상서』를 가르치되 또한 끝까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딸의 이해가 명철하여 육경의 경전조차 모두 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거사가 이미 궁벽진 곳에 거처하였고 송겸이 아직 어리니, 아침저녁으로 곁에서 조용히 고금의 치란(治亂)과 성현의 언행을 논하며 집안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오직 이 딸일 뿐이었다.

#3 제자 오진주와의 혼인과 죽음

#4 딸은 타고난 바탕이 특히 온화하고 공손하며 자애롭고 어질었다. 어려서 장난치며 놀 때부터 형제들 간에 또한 화내는 모습이나 거스르는 말이 드물었으니, 부모에게 어머했는지 알 만하다. 시집가서는 시어머니를 공경스럽게 모시고, 남편을 정중히 사랑하여 함부로 가까이 대하지 아니하였다. 유독 세속 부녀자들의 자태를 꾸미기를 잘하지 못하니, 친척들 중 어떤 이들은 이 딸이 현숙함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큰 할아버지 곡운선생과 숙부 삼연이 매번 이 딸을 즐겨 불러 함께 말을 나누며 여사(女士)로 대우하니, 온 집안의 딸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리들 중에 있을 때는 공손하게 물러나 있으면서 한결같이 무능한 듯이 굴며 오직 삼가며 여공(女工)에 힘썼다.

오씨에게 시집간 지 7년 동안 오씨집안 사람들이 이 딸이 한 번이라도 책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없었으며, 명중조차도 또한 보지 못하였으니, 딸이 침착하고 꼼꼼하기가 이와 같았다.

#5 그런데 일찍이 형제들에게 가만히 이르기를 “만약 내가 남자가 될 수 있다면 다른 소원은 없어요. 다만 깊은 산속에 집을 짓고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쌓아두고 그 가운데서 조용히 늙어가면 충분할 뿐이에요.” 하였다. 또 명중과 얘기를 나누게 되면 문득 이러한 뜻을 머루어 알리면서 “참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저는 마땅히 들밥을 내어가고 누에를 치며 그대의 의식을 받들겠어요.” 하였다. 또 매번 알맞은 때에 힘써 공부하여 경술과 문장으로 자립하기를 명중에게 권면하며 “죽은 다음에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은 군자가 싫어하는 일이지요.” 하였다. 평소의 말이 대개 이 정도에 그칠 따름이었다.

#6 딸의 친정 가계와 시가의 가계

#7 딸의 묘지명을 짓게 된 경위

거사가 예전에 일가 중에 요절한 딸을 위해 묘문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딸이 그것을 보고서 “이 아이는 그래도 아버님의 글을 얻어서 그 죽음이 불후할 것이니, 불행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였다. 간혹 또 명중에게 “저는 여자라 이 세상에 아무런 공덕도 드러낼 수 없으니 차라리 일찍 죽어 제 아버님의 몇 줄 글을 얻어 묘석에 새기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8 명은 이렇다. “몸은 여자나, 학식은 儒士였지. 살아선 가려진 삶, 죽으니 더욱 애석해라. 하늘에 달린 운명이야,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 내 손에서 나온 명이야, 그래도 부서지지 않으리.”

조선후기 비지문의 대가로 꼽히는 김창협이 가장 사랑했던 셋째딸의 죽음에 부친 묘지명이다. 비지체의 簡嚴美를 추구하였던 그답게, 이 작품 역시 구성과 문체가 엄정하고 간결하며, 감정의 조절 역시 엄중하다. 이런 점에서 이 묘지명은 정격이다. 또한, #4단락에서 집중적으로 서술한 대로, “온화하고 공손하며 자애롭고 어진 바탕, 형제간 우애와 부모에 대한 효성, 출가 뒤 시부모 공경과 남편에 대한 순응, 그리고 여공에 힘쓰는 일상” 등, 딸의 일생을 유가적 규범에 의거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읽어보면, 딸의 삶과 일상은 규범적이면서도 전혀 규범적이지 않음을 눈치챌 수 있다. 밑줄 친 부분을 유의하면서 #2, #4, #5, #7, #8의 단락을 읽어보자. #2단락은 딸의 십대 시절 규방에서 요구되는 이상의 학문에 몰두하는 일상생활을 서술하고 있다. 『논어』, 『상서』, 『주자강목』을 비롯한 육경의 경전을 통달한 수준은 결코 당대 여성으로서는 흔한 일이 아니고 긍정할 일도 아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글을 알아도 해는 되지 않을 것”이란 아버지의 말은 당대의 규범과 관습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딸과 고금의 치란과 성현의 언행을 토론하기 좋아하였다 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단락에서 주목할 것은, 이 딸이 출가 전 남성가족들(아버지는 물론이려니와, 당시 최고 수준의 학자 문인이라 할 종조부 김수증과 숙부 김창흡)로부터 女士로 학문의 수준을 공공연히 인정받았던 것과 달리, 시가에서는 그러한 그녀의 학식을 아무도(남편조차) 모르도록 살았다는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상의 대조 속에 김창협은 당대의 관습과 규범에 의해 강요된 여성의 삶을 통해 그러한 관습과 규범이 여성에 대한 억압이자 폭력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5단락에서 주목할 부분은 딸이 평소 형제들에게 가만히 토로한, 그녀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이다. “깊은 산 속에서 수백 수천 권 책 속에 파묻혀 사는 삶”,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삶과 일상이지만, 결코 그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삶과 일상이다. #7단락은 세상에 아무런 공덕도 드러낼 수 없는 규방의 삶을 오래 사느니 일찍 죽어 아버지의 글로 남겠다는 딸의 극언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이 역시 규범과 거리가 먼 언행이다.

이와 같이 이 묘지명은, 딸이 살아내어야 했던 규범적 일상과, 규범 너머의 삶과 일상을 원했던 딸의 모순된 삶, 일상이 아이러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8단락의 명에서 보듯이 “몸은 여자인데 학식은 유사”인, 곧 규범과 일상의 괴리를 보여주는 경우라 하겠다.

<작품 예시 2> 김창흡의 <外孫女李氏墳誌>(『三淵集』 권28)

#1 외손녀의 인물됨과 죽음

#2 평소 너를 아꼈던 일흔 살의 할아버지 삼연은 병이 절박해져 죽음을 앞두고서 아무리 해도 정을 풀 길이 없어 겨우 몇 줄 짧은 글을 무덤을 덮기 전에 부쳐 넣는다. 신령이여, 이를 아는가? 모르는가?

#3 지난 여름 나는 화음동에서 나와 종남산의 정자에서 너와 함께 지냈지. 노인이라 피로가 심하여 커다란 평상에 시원한 대자리를 깔고 누웠었지. 그러면 너는 내 옆에서 등불을 밝혀 놓고 지칠 줄 모르고 옛 책을 읽었지. 때면 무릎을 칠 만한 기이한 대목에 이르면 문득 일어나 찬 오이를 씹어먹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답답증을 풀었었지. 그때 종소리 찾아들고 인적이 고요하고 정원은 맑고도 삼엄한데 소나기가 주렴에 흠뻑리다 간혹 평상 머리에까지 흠날리면 노쇠한 내 마음은 매우 쾌적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승과 저승이 갈라선 것이 아니라 선계와 속계로 영원히 떨어진 것이구나.

#4 나는 일찍이 너를 데리고 화음동 골짜기로 들어가고 싶었었다. 바위 사이의 샘물로 너를 즐겁게 해주고 시서를 가르쳐 너를 해박하게 만들어 너에게 영묘한 마음과 고상한 운치를 갖도록 하여 너와 함께 그윽한 담소를 나누고자 하였으니, 비너나 귀걸이 따위에 악착을 떠는 가증스런 습기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여러번 하고서도 끝내 함께 하지 못했으니, 이것이 진실로 네가 포한이 심한 이유일 것이다. 내가 어찌 차마 잊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눈물이 떨어지니, 또 처음과 끝을 묶어서 글을 잇는다. 신령이여 아는가? 모르는가?

광지는 성인이 되지 못한 채 일찍 죽은 자녀들에게 묘지명 대신 쓰는 간략한 묘도문자이다. 말 그대로 무덤이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름과 생몰년, 가계 등을 써서 무덤에 넣는 것이다. 김창흡이 외손녀의 무덤에 넣고자 쓴 이 광지는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죽은 외손녀의 일상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이 광지는 일반적 격식을 벗어나 있다. 전반부는 묘지명의 성격을,

후반부는 제문의 성격을 띤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다. 예시에서 생략한 #1 단락에서 외손녀의 타고난 품성과 영민한 자질, 그녀의 죽음을 차례로 서술함으로써, 묘지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2단락의 “아무리 해도 정을 풀 길이 없어”라든가, “신령이여, 이를 아는가? 모르는가?(靈其知耶? 其不知耶?)”, #4단락의 “신령이여 아는가? 모르는가? (靈乎其不知不?)”와 같은 어법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글은 제문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형식의 꺾이는 김창흡이 여성으로서의 외손녀의 삶을 전하기보다 외손녀를 잃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결과이다.

그런데 정작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것은 양식의 변화 속에 담긴 일상의 재연이다.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하면서 #3과 #4단락을 읽어보자. #3단락은 노쇠한 외조부와 영민한 외손녀가 보내는 여름날의 일상 정경이고, #4단락은 화음동에서 외손녀와 함께 하기를 꿈꾼 일상이다. 외손녀가 외조부 곁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읽던 옛 책은 무엇이고, 무릎을 칠 만한 기이한 대목은 또 무엇인가? 이는 생략한 #1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손녀는 “비록 女 識는 읽지 않았지만 圖史를 본땀기에 아름다운 孝友의 실상이 절로 부합하였다. 그러므로 유독 諺記와 稗說로 古人의 奇節과 偉行을 살피고, 숭상할 만한 忠臣, 烈士에 대해 본받고자 하였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언문과 패설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내훈류의 여성교육서를 제쳐놓고 남성들의 세상에 흥미를 보이는 외손녀의 독서행태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으니, 여기서도 일상과 규범의 괴리를 엿볼 수 있다.

외손녀의 일상과 당대 규범 사이의 괴리는 #4단락에 이르면 더욱 분명해진다. 외조부 김창흡은 총명한 외손녀를 자신의 은거지이기도 하고 가문의 은거지이기도 했던 화음동(이곳은 김창흡의 백부 김수증의 은거지였고, 이어 김창협, 김창흡 형제 등이 한때 은거한 곳이었다.)에 데리고 가서 진정한 산수간의 운취를 알게 하고, 게다가 詩書를 가르쳐 해박한 인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삶과 일상은 바로 김창흡 자신이 평생을 통해 추구한 삶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삶과 일상을 외손녀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를 또 외손녀에게 약속했다는 것이다. 비록 어린 외손녀에게 한때 들려준 헛된 꿈이라 할지라도, 화음동의 일상은 당대 여성들이 실제로 살아간 삶,

일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1 단락에서 “閨房의 玉映뿐 아니라 林下の 風氣를 겸한 자”라 한 외손녀의 자질 중에서 그가 특별히 林下의 風氣(여성의 자질이 아니다.)를 긍정하고, 그를 당대의 규범에 의거해 목살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외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여 출가하는 삶을 살았다면, 마치 앞에서 살펴본 바 김창협(1734-1808)의 셋째딸 운정과 같은 삶이 되었을 것은 자명하지만 말이다.

3) 일상과 규범의 내재화, 정약용의 예

<작품 예시> 정약용의 <丘嫂恭人李氏墓誌銘>(『국역 다산시문집』 권16)

#1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연천현으로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일이 있다. 어머니가 술을 담그고 장 달이는 여기에 큰형수와 저포놀이를 하며 3이야 6이야 외치며 그 즐거움이 넘쳐 흘렀다.

#2 여러 해 뒤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리시니, 나는 그때 겨우 아홉 살이었다. 머리에 이와 서캐가 득실거리고 때가 얼굴에 더덕더덕 하였는데 큰형수가 날마다 힘들여 씻기고 빗질하였다. 그러면 나는 또 몸을 흔들며 벗어나서 큰형수에게 기려하지 않았다. 큰형수는 머리빗과 세수대야를 들고 따라와서 어루만지며 씻으라고 사정하였다. 달아나면 잡기도 하고 울면 조롱도 하였다. 꾸짖고 놀려대는 소리가 뒤섞여 떠들썩하니 온 집안이 한바탕 웃고 모두들 나를 땀살스럽게 여겼다.

#3 큰형수의 살림살이

#4 큰형수의 가게

#5 큰형수의 죽음

#6 명은 이렇다. 시어머니 섬기기 쉽지 않거니, 계모인 시어머니는 더욱 어렵네. 시아버지 섬기기 쉽지 않거니, 아내 없는 시아버지는 더욱 어렵네. 시숙 대우하기 쉽지 않거니, 어머니 없는 시숙은 더욱 어렵네. 여기에서 유감없이 잘 하였으니, 이것이 큰형수의 너그러운일세.

정약용의 이 작품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자신을 양육한 큰형수를 대상으로 한 묘지명이다. 서두부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으로 곧장 돌입하여 일반적 묘지명과는 판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1단락은 어머니가 술을 담그고 장을 달이는 틈에 어린 시동생과 형수가 떠들썩하게 지포놀이를 벌이는 정경을 간결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2단락은 어머니를 일찍 여윈 작가 자신을 양육하던 때의 일상의 한 국면을 생동감 넘치게 포착하고 있다. 머리에 이와 서캐가 득실거리고 때가 얼굴에 더덕더덕 붙은 어린 시동생을 씻기려고 세숫대야와 빗을 들고 쫓아다니는 형수와, 씻지 않으려고 도망치며 야단법석을 떠는 어린 시동생, 이 소동을 지켜보며 웃고 떠드는 식솔들, 이 모두가 한 장면 속에 재연되어 있다.

에시에 생략한 #3, #4, #5단락은 묘지명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과 #2단락의 일상을 재연한 회상부분과 비교해 서술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기술내용 또한 매우 간략하다. 이는 #1과 #2단락을 통해 큰형수의 인물됨과 행실의 핵심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전대의 묘지명에서 흔히 보듯이 “온화한 성품으로 가족, 집안, 친족간의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식의 전언적 서술을 통해 표면적으로 여성의 규범적 덕목과 행실을 드러내지 않는 대신, 정약용은 자신의 체험이기에 眞情性이 더욱 배가된 일상의 재연을 통해 규범 이전의 인간적 정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간적 정리 속에 당대의 규범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⁷⁾

4) 일상과 규범의 탈피, 박지원의 예

박지원은 망자의 정신과 감정, 모습과 목소리, 함께 했던 추억을 그려볼 수 있도록 묘지명을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이 창작으로 실

7) 박무영은, 사적인 것을 인정하되 공적인 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통제되어야 한다는 정약용의 인식적 태도가 그의 서정시에서 서정적 자아를 객관화하는 객관 묘사와 서사적 기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논의는 묘지명에서 일상의 묘사(주관적 서술이 아닌) 속에 규범을 내재화시키는 것과 맥락이 통한다. 박무영, 『정약용의 시와 사유방식』(태학사, 2002), 182면 참조.

천될 때, 그 묘지명이 전대의 묘지명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박지원의 묘지명을 두고 이른바 變格이니 破格이라 지칭한 것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지목한 것이다.

<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은 박지원 스스로 득의의 작품으로 생각했던 작품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 묘지명은 누이가 세상을 뜬 직후 처음 지었을 때의(『并世集』 소재의 <伯姊孀人朴氏墓誌銘>) 개작후의 작품(대개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연암집』 소재의 작품) 사이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한다. 박지원은 개작을 통해 누이의 성품과 남편의 선대, 가정생활 등 종래 묘지명에서 요구하는 관습적, 형식적 내용 일체를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묘사를 강화하여 인물의 성격을 전경화하였다. 그리하여 처음에 무난했던 글을 비난을 무릅쓰면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랑하는 누이를 떠나보낸 동생의 아픈 마음을 절절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글의 내용을 강화하였다.⁸⁾

‘현재, 새벽 강가에서 처남일가와 누이의 영구를 떠나보내는 장면 → 과거, 어린시절 신흠의 누이가 새벽 화장을 할 때 그 곁에서 응석을 부리던 광경의 장면화 → 현재, 홀로 강가에 서서 멀어져 가는 누이의 영구를 바라보며, 산, 강물, 달에서 누이를 떠올리는 장면 → 명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생사의 갈림을 슬퍼하는 송별시’로 이어지는 이 묘지명에는 그 어디에도 규범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박지원이 묘지명에서 당대의 관습이나 규범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것은, 그가 오직 자신의 진정을 따라서 일상의 추억을 담은 양식으로 묘지명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정을 따르면 지극한 예가 되고, 정경을 묘사하면 참다운 문장이 되니, 글에 어찌 일찍이 정해진 법칙이 있으리요?”라고 한 이재성의 평이나, “간절한 정이 표현이 사람을 까닭없이 눈물을 흘리게 한다.”라 한 이덕무의 평이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⁹⁾

8) 정민, 「연암 박지원의 <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 개작과정」(『문헌과해석』 13호, 문헌과해석사, 2000) 참조.

9) 이상의 논의는 줄고, 앞의 논문 참조.

3. 여성 대상 제문에 나타난 일상과 양식성

제문은 제사라는 예제를 거행하는 의식적 기능과 망자에 대한 애도의 심정을 표출하는 정서적 기능을 동시에 갖는 문학양식이다. 의식적 기능은 망자에 대한 칭송을 통해 나타나고, 정서적 기능은 애도를 중심으로 실행되는데, 칭송부분은 망자의 일상 가운데 윤리 도덕적으로 기억할 만한 사건과 높이 평가할 만한 행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애도부분은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을 토로하는데, 또한 조화와 절제를 견지하려 한다.

17세기 제망실문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기대면, 17세기 제망실문 속의 여성은 대체로 효와 순종의 삶을 살다간 여인으로 그려진다. 17세기는 부계주의가 강화되는 시기로, 효를 강조하고 어느 때보다 여성에게 과중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당시 사회와 남성들이 바라던 규범적 여성이 미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망실문에 나타나는 일상은 친편일률적이라 할 事父母, 奉祭祀, 接賓客, 御奴婢 측면에서 접근된다. 그 와중에도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일상)을 회상하는 부분에서 진실된 정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제한적이다. 그런데 제망녀문은 상대적으로 명분이나 규범이 개입하는 요소가 적고 정서적 기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앞서고, 또 딸은 성인이고 타인이기 이전에 언제나 아버지에게는 ‘어린딸’이기 때문에 아내나 어머니와 달리 규범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¹⁰⁾

예컨대 송시열이 그의 아내를 대상으로 쓴 「祭亡室李氏文」, 장녀를 대상으로 쓴 「祭長女權氏婦文」, 외손녀를 대상으로 쓴 「祭外孫女尹娘文」(『宋子大畵』 권153)과 같은 경우,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주로 진술할 뿐 그녀들의 일상을 드러내지 않는다. 17세기 제문 중 가장 긴 장문으로 꼽히는 김수항의 「祭亡女文」(『文谷集』 권23, 이 여성은 뒤에서 예시할 김창협이 「祭亡妹文」의 여성과 동일한 인물이다.)의 경우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진술하고, 이념적 내용(규범성)을 대폭 줄여 참담한 슬픔을

10) 이상의 논의는 황수연, 「17세기 ‘祭亡室文’과 ‘祭亡女文’ 연구」(『한국한문학회연구』 30집, 한국한문학회, 2002), 50면, 57~58면 참조.

토로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그녀의 구체적 일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을 지나 18세기로 접어들면 여성 대상 제문양식 속으로 풍부하게 일상이 들어오고, 그 일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적 형상화를 이루며 제문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 양식의 준수와 일상의 서정화, 김창협과 김창흡의 예

<작품 예시 1> 김창협의 <祭亡妹文>¹¹⁾

#1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영전에 고향

#2 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심경과 누이의 인물됨

너는 아름다운 자질과 수려한 용모로 孝友는 지성에서 나오고 고운 행실은 女則에 부합하였으니 여러 미덕을 고루 갖추었지.(후략)

#3 누이와 형제간의 남다른 애정

#4 누이의 죽음과 부고

#5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의 상실감

#6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의 상실감

#7 나와 큰 형님이 백운산 아래에서 오두막집을 열고 살 때 너는 동주(철위)에서 험한 길을 넘어와 열흘 남짓 머물고는 다시 돌아가곤 했지. 산나물 반찬에 거친 밥을 먹어도 싫어하지 않았고, 깊은 숲 산골짜기 시냇물 오르내리면서도 싫증낼 줄 몰랐지. 너는 내 소박한 살림을 좋아했고, 나 또한 시원하고 발랄한 성품을 좋아했더랬지. 이제 나는 곧 예전에 살던 동쪽 집으로 돌아가는데, 산은 텅비고 물만 공연히 흐르겠지. 오두막집은 그 모습 그대로이겠지만 예전에 노닐던 곳은 모두 묵은 자취가 되겠지. 나는 이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느냐! 슬프고 슬프구나! 가슴이 찢어지고 찢어지는구나.

#8 나의 회포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 종이를 앞에 놓고 붓을 잡으니 정신이 놀리고 생각이 막혀 글을 지어낼 수가 없구나. 또 哀辭가 있어 대략 너

11) 이 절에서 예시한 두 작품은 모두 이승수 편역, 『옥같은 너를 어이 묻으랴』(태학사, 2001)에서 부분 재인용하였다.

의 행적을 말하였지만 거기서도 슬픔이 끓어올라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다. 너는 평소 詩書를 익히지는 않았지만 글 읽는 소리를 좋아했었지. 그래서 나는 매양 너를 위해 글을 읽어 네가 듣도록 하지 않았더냐? 이에 이 글로 너를 꼭하게 되었으니, 아 이게 어찌된 일이나? 슬프고 슬프구나! 가슴이 찢어지고 찢어지는구나.

김창협이 이 작품은 제문의 의식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조화롭게 갖춘 장격의 제문양식이다. #2단락에서 #8단락까지의 7개 단락이 각각 ‘悲夫悲夫, 痛矣痛矣’라는 동일구문으로 일단락을 맺는 데서 보듯이, 이 제문은 정연한 당송고문의 형식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단락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김창협은 누이의 인물됨과 행실을 규범에 맞추어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전체 분량 중 생전의 누이와 형제간의 우애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의 상실감을 서정적으로 서술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 기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의식적 기능은 약하다. 예시에서 생략한 #3단락에서 #6단락에 걸쳐, 김창협은 매우 서정적 어조로 누이를 잃은 슬픔을 반복적으로 서술하였다. 그 중 #6단락의 “아침저녁으로 침전에 문안을 여쭙 때 형제들이 다 모여도 너는 있지 않구나. 아침저녁으로 어른들을 모시고 밥을 먹을 때 형제들은 나란히 앉아 있지만 너는 있지 않구나. 나들이 할 때도 너와는 함께 하지 못하는구나. 옷 으며 말을 할 때도 너와는 같이 하지 못하는구나”와 같은 대목은, 누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상의 부재를 동일한 구문 속에 반복함으로써 상실감과 비애감이 증폭된다.

한편, #7단락은 밑줄 친 부분에서와 같이 일상정경의 서정적 묘사를 통해 형제간의 우애와 상실감을 그려보이고 있다. 김창협과 그의 큰형 김창집이 백운산 아래 은거하였을 때는 갑인예송으로 아버지 김수항이 유배된 시기이다. 김창협은 이때 나이가 29살이고, 누이는 15살이었다. 저간의 자세한 사정을 생략한 채, 김창협은 자신과 큰형이 백운산 아래 살 때 누이가 철원에서(철원은 김창협이 은거하던 곳) ‘힘한 길’을 넘어 왔다는 말로 가문과 집안에 닥친 불행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는 오히려 매우 명랑

한 어조로 — 이 어조는 누이의 시원하고 발랄한 성품을 반영한다. — 누이와 자신이 백운산 골짜기와 시내를 함께 누비던 일상의 즐거움, 산간의 소박한 생활을 즐기던 기쁨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누이가 죽고 없으니, 다시 찾아갈 백운산에는 누이의 부재로 인해 상실감과 공허감만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러한 비감을 김창협은 소동파의 시구를 따서 “산은 텅 비고 물만 공연히 흐르겠지”와 같은 시적 묘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예시 2> 김창협의 <祭亡室李氏文>

(전략)

#1 아아 나의 반생은 바람에 나무끼는 쭉대 같았으니, 한곳에 머무르기만 하면 모두 산산조각이 났소. 당신은 참으로 힘들었지만 순종을 기쁨으로 삼았으니, 당신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나의 이 어리석음을 어디에 펼칠 수 있었겠소. 옛날 편안하여 잠깐 금슬이 좋았을 때, 이부자리에서 언뜻 巖穴에 숨을 생각을 말하고 당신의 눈치를 살폈더니 별로 거스르지 않더이다. 이에 바로 금강산으로 떠나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하기를 벌써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고 했지만, 차분하게 기다려 주었으니 모두 그 한결 같은 마음을 칭송했다오.

#2 내 광증이 조금 그쳐 함께 숨을 곳을 결정하였소. 서울에서의 변화한 삶과 별개의 찬란한 빛과 풍요에 대한 미련을 양 날로 끊어버렸지요. 하늘 높이 치솟은 태화산, 귀신처럼 늘어선 봉우리들, 좁은 산길과 굽은 구름다리, 삼부연엔 어스름한 기운이 쌓여 있고 독룡은 굴속에 숨어 있어, 대낮에 바람이 일고 우리가 올리면 건장한 사내도 벌벌 떨었지만 당신의 안색을 살피니 아주 편안하였소. 사이사이 뿔나무가 서 있고, 소나무와 향나무가 울창한데, 사내들은 따비발을 갈고 계집종은 고사리를 캐었지요. 학림의 긴 해에 그 기쁨을 맛보며, 이만한 즐거움이 없다고 여겨 함부로 나가지 않기로 맹세하였지만, 하늘이 우리들의 淸福을 시샘하여 곧 도로 앗아가 버리고 말았소.

(후략)

김창흡의 이 제문은 조선후기 제망실문 중에서 장편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아내의 삶 뿐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 매우 짙진하게 묘사, 서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평생을 궁벽진 산수간으로 옮겨 다니며 “나부끼는 썩대같이, 미친놈처럼 떠돌며 살아온” 자신의 일생을 시종일관 묵묵히 따라 주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이 글의 핵심이다.

예시한 #1단락에서 주목할 것은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이부자리에서”에서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은거의 뜻을 타진하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허락을 받고 금강산행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온 자신에 대해 “미친놈처럼”, “머리 깎고 중이 되었다”는 등의 낮은 표현이다. 이러한 사실적 표현을 통한 일상의 재연이 바로 이 제문의 새로운 면모이다.

#2단락은 혼자 돌아다니던 광기를 멈추고 아내와 함께 산수간의 은거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부분이다. 이후 김창흡은 양주로, 벽계로 옮겨 다니는 생활을 기술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아내와 함께 은거했던 태화산 아래 삼부연의 정경과 일상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늘 높이 치솟은 태화산, 귀신처럼 늘어선 봉우리들, 좁은 산길과 굽은 구름다리, 삼부연엔 어스름한 기운이 쌓여 있고, 독룡은 굴속에 숨어 있어, 대낮에 바람이 일고 우레가 울리면”과 같은 묘사는 마치 유기문의 한 부분을 옮겨온 것 같다.

이와 같은 서정적 묘사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김창흡의 제문은 예도의 심정을 주정적인 진술방식으로 토로하는 일반적 제문과 다른 독특한 문학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2) 양식의 변화와 일상의 서사화, 이광사의 예

<작품 예시> 이광사의 <孺人生日祭文>(『斗南集』, 권2)

#1 아! 오월이라 초사흘은 / 그대의 생일. / 헤마다 이 날 / 창이 환해지
기도 전에 / 아들·조카·며느리고 딸이고 / 모두 와 새벽 문안 드렸었지.
/ 나 역시 일찍 일어나 / 나아가 그대에게 말하길 /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 마땅히 갖은 음식 차려 / 아들 손자까지도 / 좋은 날을 즐깁시다 그려” 하면 / 그대는 웃으며 대답했었지. / “내가 뭐 대수롭기에 / 내 생일 땀에 / 번거롭게 굴 게 뭐 있어요?” 나 또한 싱글벙글 말했었지. / “아들 둘 장가 들었겠다 / 집안의 마님이 되었는데 / 높지 않다면 뭐 높소 그래?” 이렇게 주고 받다 보면 / 아침해는 어느덧 등실 / 그때 친정 계집종이 / 벌써 문에 들어오니 / 머리엔 목판을 이었고 / 쪽빛 보를 덮었는데 / 손을 들어 그릇을 내려 놓으며 / 입으로 마님 말씀 전하겠다. / “이게 비록 보잘 건 없어도 / 식기전에 딸에게 준직하다.”고 / 한 쪽으로 열어 헤치니 / 뜨거운 김이 솟아오르네. / 국수장 국에 썰에 / 고기에 생선까지 / 새며느리가 살림 맡아 / 나누매기 재빠르고 부지런하여 / 마주 앉아 실컷 먹으니 / 다들 고무고루 / 내가 돌아보며 장난삼아 / “오늘 태어난 이가 / 어찌 그리 갑자기 웃고 말하며 / 어찌 그리 금방에 키는 컸으며 / 젓을 안먹고 밥을 먹으며 / 게다가 정신까지 / 어이 이리도 숙성 한가? / 高辛氏보다도 훨씬 나온데!” / 一座가 모두 웃으니 / 그대 또한 빙그레 웃었지. [34구]

#2 늙으면 / 이런 즐거움 갖으려니 / 이런 일로 自慰하고 / 貧賤함도 그런 대로 잊으렷디니만 / 뉘 알았으랴 지난해 / 햇곡식도 미처 나기 전 / 생일도 보기 전에 / 갑자기 목숨 끊을 줄을. (후략) [48구]

#3 8월도 그믐께 / 날은 저 경신일(29일)에 / 난 몹쓸 운을 만나서 /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났네. / (후략) [74구]

#4 아내를 잃은 슬픔 [98구]

#5 인편에 이 글을 보냄 [115구]¹²⁾

이광사의 이 작품은 죽은 아내의 생일에 부친 제문이다. 위에 예시한 誄(4언의 齊言) 앞에서 “3월 11일 기묘는 바로 내 죽은 아내 유인 문화 류씨의 첫 제삿날이다. 남편 이광사가 닭 울자 들에 나아가 통곡하고는 온종일 서러워 글을 지어 인편을 기다려 집에 보내서 5월 5일 궤연에 읽게 하려고 한다”라 하였듯이, 이 제문은 죽은 아내의 돌아올 생일날에 맞추어 두 달 전

12) 鄭良婉, 『江華學派의 文學과 思想(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에 수록된 작품번역을 부분적으로 재인용하였다.

에 미리 쓴 글이다.

이 생일 제문에 앞서 이광사는 유배지 부령에서 <祭柳氏墳前書>와 <亡妻柳氏初葍祝文>을 썼으며, 또 아내의 행적을 전하기 위해 <亡妻孺人文化柳氏紀實>을 지었고, 또 몇 편의 도망시를 더 남겼다. 자신이 극형에 처해진다는 소문에 그대로 자결해버린 아내의 죽음이었고, 그러한 아내의 죽음을 손수 수습하지 못한 채 유배길에 올라 멀리 유배지에서 인편으로 제문을 전해야 했던 처절한 처지이고 보니, 여느 제문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단지 특별한 상황과 처지가 특별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아내가 죽고 일년이 넘었으니 극렬하게 끓어오르던 참척도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문은 비탄적 애도의 분출과 주정적 진술로 이루어지는 제문과 달리 감정 조절과 문학적 장치가 돋보인다. 인편에 부쳐 궤연에서 읽게 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제문 역시 의식적 기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 기능이 중심이 되는 제문임이 분명하다.

예시문의 밑줄 친 부분과 진하게 된 부분을 유의하며 읽어보자. #1단락은 ‘嗚呼’를 빼고 나면 4언으로 제언한 34구에 달하는 긴 분량이다. 여기에 이광사는 생전의 행복했던 아내의 생일날 아침정경을 재연하고 있다. 일상의 재연이 확대되어가는 것이 조선후기 제문과 묘지명의 일반적 추세이지만, 이광사의 이 예문처럼 이렇게 길게 확대되어 서사적으로 재연되고, 이렇게 꺾진하게 형상화된 예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다. 진하게 된 부분은 마치 소설에서 새로운 장면이 전개될 때의 묘사와 흡사하고, 밑줄 친 부분은 소설 속 대화를 방불한다.

#2단락은 아내의 자결과 자신의 유배라는 현실을 서술하였는데, 바로 앞의 #1단락과 큰 낙차를 이룬다. 이 낙차를 통해 아내를 잃은 슬픔이 새삼 상기되고, 이러한 장치를 통해 이 글이 제문임이 다시 상기된다.

예시를 생략한 #3단락은 총 26구에 달하는 긴 분량에 자신의 생일날을 재연하고 있다. 남편의 생일에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하여 대접하려는 아내, 일찍 여윈 부모 생각에 “제발 좀 수선 좀 피우지 마시오” 하며 핀잔을 주는 남편, 그래도 별미를 장만하여 상에 올리는 아내, 끝내 음식에 입을 대지

않아 아내를 울게 만드는 남편의 모습이 차례로 묘사되어 있다. 이 역시 #1 단락과 마찬가지로 서사적 장면전개, 대화와 묘사를 통해 일일이 재연되어 있다. #4단락은 앞의 #1단락과 #2단락이 보여준 대로 행복한 과거와 불행한 현실의 낙차를 보임으로써, 다시 이 글이 제문임이 상기된다.

이상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장편의 분량, 매우 잘 짜여진 구성 속에 일상적인 부부애를 탁월하게 구현하고 있다. 여기에 달리 규범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는 이광사가 제망실문의 양식을, 사적인 공간에서의 내밀한 체험(당시로서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과 가장 사적인 부부애(규범으로 재단할 수 없는)를 드러내는 문학양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결국 일반적, 관습적 제문양식의 탈피라 하겠다.¹³⁾

그런데 이광사가 쓴 여성 대상의 글이 모두 이처럼 내밀한 사적 체험에서 나온 일상을 재연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先妣 貞夫人坡平尹氏墓誌銘>을 보면, 일상의 재연은 자녀훈육의 엄격한 모습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말이 인용되는 수준, 남편의 뜻을 따르는 행실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말이 인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아내를 대상으로 한 경우라 해도 창작 목적이 아내의 행적을 가문의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했을 때는 사정이 달랐다. <亡妻孺人文化柳氏紀實>에서는 줄곧 義에 의거한 그녀의 행실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규범 너머의 사적인 일상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자녀훈육의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일상이 재연되고, 부부간 일화는 師友로서의 모범적 언행을 반복적으로 재연하고 있다.

13) 이광사의 <祭妹柳氏婦文>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제문 역시 유배지에서 써서 인편에 보내 누이의 케연 앞에서 읽도록 한 제문이다. 장편의 4인체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은, 누이의 행실을 기리는 의식적 기능과 누이를 잃은 슬픔을 토로하는 정서적 기능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제문은 당시 관행으로는 매우 해괴하다는 평(이광찬의 <評 斗南祭妹柳氏婦文>)을 받으면서까지 누이의 화장기술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4. 결론

본고는 조선 후기 여성 대상 묘지명과 제문에 나타난 일상성을 살펴보았다. 묘지명에서는 여성의 일상과 그 일상이 당대 규범과 관계 맺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제문에서는 여성의 일상을 드러내는 문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상의 개입이 당대의 규범에 구애됨 없이 풍부하게 이루어질수록, 또 일상의 재현이 시적 진술, 서정적 묘사, 서사적 전개,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질수록, 격식성, 투식성이 강한 묘지명과 제문 양식이 새롭게 변화해 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묘지명과 제문 양식의 변화를 추구한 작품들 속에는 여성의 일상뿐 아니라 작가 자신의 일상까지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데, 당대의 유가적 규범으로 재단할 수 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곧 일상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여성 대상 묘지명과 제문에서 일상을 재발견하게 되는 연유는 무엇인가? 박지원의 묘지명 작품을 설명할 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고정된 규범 — 인식상의 규범이든 문학양식상의 규범이든 — 에 매이지 않고, 작가 자신의 정과 개성, 대상의 실상에 따라 창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문학인식에서 나온 결과라 하겠다.

17세기 후반부터 문학인식의 측면에서 理(또는 性) 대신 情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문에서 眞情의 논리를 본격적으로 펼쳤던 김창협과 김창흡 형제가 일상성을 재발견하는 묘지명과 제문을 남긴 것은, 바로 이러한 문학인식의 실천 결과라 할 수 있다. 18세기에 들어서면, 양명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명칭의 소품문이 조선의 문단에서 활발하게 유행하고, 그와 맞물려 소품문의 창작 역시 성행하게 된다.¹⁴⁾ 소품문의 의미는 일상생활의 묘사를 통해 작가의 진실된 인생과 풍부한 내면세계를 펼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품문의 성행 속에 여성 대상 묘지명과 제문의 변화가 놓여 있는 것이다.

14) 소품문의 특성과 작품의 실상에 대해서는 안대회 엮음, 『조선 후기 小品文의 실체』(태학사, 2003)에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참고문헌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2』, 민족문화추진회.
 金昌翁, 『三淵集』, 『한국문집총간 167』, 민족문화추진회.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14』, 민족문화추진회.
 李匡師, 『斗南集』, 규장각소장본.
 李植, 『澤堂集』, 『한국문집총간 88』, 민족문화추진회.
 李用休, 『惠寔雜著』, 국립중앙도서관본.
 정약용 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편, 『국역 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박무영, 『정약용의 시와 사유방식』, 태학사, 2002.
 심노승 지음, 김영진 옮김,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이승수 편역, 『옥같은 너를 어이 묻으랴』, 태학사, 2001.
 李澤厚 저, 尹壽永 역, 『美의 歷程』, 동문선, 1994.
 鄭良婉, 『江華學派의 文學과 思想(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정창권 풀어 씌,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강혜선, 「조선후기 女性 墓主 墓誌銘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집, 한국한문학회, 2002, 7~36면.
 김영진, 「효전 심노승 산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7.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6.
 ———, 「한국 일기문학론 소고」, 『한문학논집』 14, 1996, 393~431면.
 심정호, 「서정자아의 근대적 변모와 그 한계」, 『한국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563~592면.
 정민, 「연암 박지원의 <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 개작과정」, 『문헌과해석』 13호, 문헌과해석사, 2000, 96~105면.
 정하영, 「조선조 ‘일기’류 자료의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25~43면.
 황수연, 「17세기 ‘祭亡室文’과 ‘祭亡女文’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집, 한국한문학회, 2002, 37~73면.

A Study on the nature of everyday life in *Myojimyong*(epitaph) and *Chemun*(ceremonial writing) for the dead woman in the Late Joseon

Kang, Hye-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nature of everyday life in *Myojimyong*(epitaph) and *Chemun*(ceremonial writing) for the dead woman in the Late Joseon. Particularl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correlation between everyday life and social ethos, and pays attention to changes of literary style in accordance with new angles on woman's everyday life.

There were great changes in the realm of the prose in the Late Joseon. Epitaph and ceremonial writing for the dead in the Late Joseon showed new style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ast which had been written for practical purpose by the noble men. Particularly there were great changes in epitaphs and ceremonial writings for the dead woman written by her family. Those changes were based on a flexible understanding of women's everyday life.

Many writers had described typical women's life according to dogmatic Way of Confucian ideas in epitaphs and ceremonial writings for the dead woman. In those works women's everyday life which had no connection with dogmatic Way of Confucian ideas had been ignored usually. However some writers recollecting women's everyday life which had no connection with dogmatic Way of Confucian ideas or disagreed with dogmatic Way of Confucian ideas, and brought out their sadness lyrically. It appears to be based on a new understanding on the function of epitaph and ceremonial writing.

Representative writers are *Kim Chang-Hyop*(김창협), *Kim Chang-Hup*(김창흡), *Bak Ji-Won*(박지원), *Yi Kuwang-Sa*(이광사) etc.

Keywords : *Myojimyong*(epitaph) and *Chemun*(ceremonial writing) for the dead woman, everyday life, social ethos, literary style